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8.(화) 17:00 / 4. 9.(수) 조간 배포 2025. 4. 8.(화) 09:00

축산악취 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방안 마련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화)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하였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김보민 (044-201-23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